

# 정답과 해설

|             |                  |     |
|-------------|------------------|-----|
| <b>I.</b>   | <b>한문을 만나다</b>   | 264 |
| <b>II.</b>  | <b>행복을 키우다</b>   | 265 |
| <b>III.</b> | <b>더불어 살아가다</b>  | 267 |
| <b>IV.</b>  | <b>사랑담게 살아가다</b> | 270 |
| <b>V.</b>   | <b>미래를 밝히다</b>   | 273 |
| <b>VI.</b>  | <b>마음을 노래하다</b>  | 275 |
| <b>VII.</b> | <b>역사를 마주하다</b>  | 278 |
|             | <b>시험 전 잠깐체크</b> | 282 |

## 시험 대비 문제

22~24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②    0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③    20 ③  
 21 ④    22 ③    23 ②    24 해설 참고  
 25 해설 참고

- 01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의 각 나라로 전파되었다. 당시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한자를 들여와 문자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사상, 문화, 역사 등을 기록하였다.
- 02 한자(漢字)는 낱글자를 뜻하고, 한문(漢文)은 한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文章)을 뜻한다.
- 03 모양: 馬, 음: 마, 뜻: 말  
 ② 文 글월 (문), ③ 魚 물고기 (어), ④ 上 위 (상), ⑤ 斤 도끼 (근)
- 04 ‘本 근본 (본)’은 나무의 뿌리 부분에 선을 그어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낸 한자이다.  
 ① 木 나무 (목), ② 末 끝 (말), ③ 未 아닐 (미), ⑤ 上 위 (상)
- 05 ‘門 문 (문)’과 ‘口 입 (구)’를 합하여 만든 한자는 ‘問 물 (문)’이다.
- 06 날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는 ‘羽 깃 (우)’이다.
- 07 ‘尖 뾰족할 (첨)’은 회의(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이다.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의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08 제시문은 한자를 만드는 원리 중 ‘지사(指事)’에 대한 설명이다.
- 09 ‘雲 구름 (운), 雪 눈 (설), 霧 안개 (무), 雷 우레 (뢰), 電 번개 (전)’은 모두 ‘雨 비 (우)’가 부수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雨가 부수로 쓰인 한자는 주로 날씨와 관련이 있다.
- 10 꿩은 획은 나중에 쓴다.
- 11 모양: 字, 음: 자, 뜻: 글자
- 12 모양: 魚, 음: 어, 뜻: 물고기
- 13 更生(갱생):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발전된 생활로 나아감.  
 變更(변경):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

㉠은 ‘다시’라는 뜻으로 쓰였고, ㉡은 ‘고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4 更生(갱생), 變更(변경), 三更(삼경).

㉠은 ‘다시 (갱)’, ㉡은 ‘고칠 (경)’, ㉢은 ‘시각 (경)’으로 쓰였다.

## 15 老人(노인): 늙은 사람.

老小(노소): 늙은이와 젊은이.

㉠은 ‘늙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고, ㉡은 ‘늙은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다.

## 16 早老(조로): 빨리 늙다.

㉢은 ‘늙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 17 (가) 日出(일출): 해가 뜰. - 주술 관계, (나) 冒險(모험): 위험을 무릅쓰. - 술목 관계, (다) 登山(등산): 산에 오름. - 술보 관계, (라) 骨折(골절): 뼈가 부러짐. - 주술 관계

## 18 鈍濁(둔탁): 둔하고 탁함. - 병렬 관계, 昇降(승강): 오르고 내림. - 병렬 관계

## 19 吾固知之(오고지지): 나는 진실로 그것을 안다. → ㉠ 固(고)는 ‘진실로’라는 뜻으로 쓰였다.

## 20 耳聞目見(이문목견): 귀는 듣고 눈은 본다. → ‘耳 귀 (이)’와 ‘目 눈 (목)’은 명사로 쓰였고, ‘聞 들을 (문)’과 ‘見 볼 (견)’은 동사로 쓰였다. 따라서 동사는 2개이다.

## 21 子欲養而親不待也(자욕양이친부대야):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 ‘而 말 (이)’는 ‘그러나’로 풀이한다.

## 22 君子之交(군자지교), 淡如水(담여수): 군자의 사귄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

23 非禮勿視(비례물시), 非禮勿聽(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제시된 글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명령문이다.

## 24 (1) 구조: 주술목보 구조

(2) 풀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孔子(주어) + 問(서술어) + 禮(목적어) + 於老子(보어)로 이루어진 주술목보 구조의 문장이다.

## 25 예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 한문 기록 속에 녹아 있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배울 수 있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공통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나라와 폭넓게 교류할 수 있다.

## Ⅱ 행복을 키우다

### 03 노력의 결실

#### 소단원 평가 문제

33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⑤

#### 01 進路 나아갈 (진), 길 (로)

突進 갑자기 (돌), 나아갈 (진)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進 나아갈 (진)'이다.

- ① 山 산 (산), ② 級 등급 (급), ④ 務 힘쓸 (무), ⑤ 促 재촉할 (촉)

#### 02 제시된 설명은 '專攻(전공)'의 풀이이다.

① 適性(적성): 어떤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그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 ③ 職業(직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④ 職務(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⑤ 進級(진급): 계급, 등급, 학년 따위가 올라감.

#### 03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 → ① '自(자)'는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였다.

#### 04 刮目相對(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새로 대함.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서로'를 뜻하는 '相(상)'이다.

- ② 上 위 (상), ③ 想 생각 (상), ④ 大 큰 (대), ⑤ 代 대신할 (대)

#### 05 有志者(유지자), 事竟成也(사경성야):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 竟(경)은 '마침내'라는 뜻으로 쓰였다.

#### 06 제시된 글은 자신만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마침내 일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 04 진실한 우정

#### 소단원 평가 문제

41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⑤

#### 01 交友 사귄 (교), 벗 (우)

交際 사귄 (교), 사이, 사귄 (제)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交 사귄 (교)'이다.

- ① 水 물 (수), ③ 月 달 (월), ④ 朋 벗 (봉), ⑤ 故 예 (고)

#### 02 [가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伯牙絕絃(백아절현)', [세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絃樂器(현악기)'이므로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絃 줄 (현)'이다.

- ① 伯 맘 (백), ② 樂 즐길 (락), ③ 絕 끊을 (절), ④ 器 그릇 (기)

#### 03 莫逆之友(막역지우): 거스름이 없는 친구. → 之(지)는 '~하는'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04 有朋(유봉), 自遠方來(자원방래), 不亦樂乎(불역락호)?: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 05 제시문은 '水魚之交(수어지교)'의 유래이다. 이 성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6 (가)~(마)는 모두 친구와의 우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가) 伯牙絕絃(백아절현):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나) 竹馬故友(죽마고우): 어릴 때부터 함께 놀며 자란 친구.

(다) 水魚之交(수어지교):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라) 莫逆之友(막역지우): 허물없이 아주 친한 친구.

(마) 有朋(유봉), 自遠方來(자원방래), 不亦樂乎(불역락호)?: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 05 가족의 행복

#### 소단원 평가 문제

49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③

#### 01 ① 家屋(가옥): 사람이 사는 집. → '家(가)'가 '집'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探險家(탐험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家(가)'가 '전문가'라는 뜻으로 쓰였다.

- 02 제시된 설명은 ‘配偶者(배우자)’의 풀이이다.  
 ① 家庭(가정):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② 兄弟(형제): 형과 아우.  
 ④ 父子(부자): 아버지와 아들.  
 ⑤ 家系圖(가계도): 집안의 혈연이나 혼인 관계 따위를 나타낸 그림.
- 03 出告反面(출곡반면): 나갈 때는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얼굴을 뵈. → ㉠ 告(고)는 윗사람에게 말씀드려 알리는 상황에서는 ‘곡’으로 읽는다.
- 04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이라는 뜻을 지닌 성어인 ‘家和萬事成’의 유래이다.
- 05 凡一家之人(범일가자인), ㉡ 務相雍睦(무상옹목): 무릇 한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 06 其心和平(기심화평), 則家內吉善之事(즉가내길선지사), 必集(필집): 그 마음이 화평하면 집안에 길하고 좋은 일들이 반드시 모일 것이다. → 빈칸에는 ‘~하면’을 뜻하는 ‘則(즉)’이 알맞다.  
 ① 一 하나 (일), ② 之 어조사 (지), ④ 孝 효도 (효), ⑤ 務 힘을 (무)

#### 시험 대비 문제

54~56쪽

- |          |          |          |      |      |
|----------|----------|----------|------|------|
| 01 ①     | 02 ⑤     | 03 ②     | 04 ① | 05 ④ |
| 06 ⑤     | 07 ①     | 08 ③     | 09 ④ | 10 ② |
| 11 ⑤     | 12 ①     | 13 ③     | 14 ② | 15 ⑤ |
| 16 ②     | 17 ④     | 18 ②     | 19 ⑤ | 20 ④ |
| 21 ⑤     | 22 ⑤     | 23 해설 참고 |      |      |
| 24 해설 참고 | 25 해설 참고 |          |      |      |

- 들어갈 한자는 ‘家(가)’이다.  
 ② 朝 아침 (조), ③ 念 생각 (념), ④ 事 일 (사), ⑤ 者 사람 (자)
- 05 ① 交換(교환), ② 交涉(교섭), ③ 婚姻(혼인), ⑤ 絃樂器(현악기)
- 06 (가) 職業 직분 (직), 일 (업)  
 (나) 婚姻 혼인할 (혼), 혼인 (인)
- 07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 → ㉠ 息(식)은 ‘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08 竹馬故友(죽마고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옛 친구. → ㉡에 들어갈 한자는 ‘예’를 뜻하는 ‘故(고)’이다.
- 09 伯牙絕絃(백아절현)은 중국 춘추 시대의 백아(伯牙)가 자신의 거문고 연주를 잘 이해한 친구 종자기(鍾子期)의 죽음에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 10 주어진 글은 ‘여러 번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뜻하는 (나) ‘七顛八起(칠전팔기)’와 가장 관련이 있다.
- 11 (매) ‘父慈子孝(부자자효)’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함.’을 뜻하는 성어로, ‘효도’와 가장 관련이 있다.
- 12 (가) 發憤忘食(발분망식): 분발하는 마음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 ‘忘(망)’은 ‘잊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3 水魚之交(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귀. → ㉡에 들어갈 한자는 ‘~의’를 뜻하는 ‘之’이다.  
 莫逆之友(막역지우): 거스름이 없는 친구. → ㉢에 들어갈 한자는 ‘~하는’을 뜻하는 ‘之’이다.
- 14 주어진 글은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갑자기 몰라볼 정도로 부족 늙.’을 뜻하는 ‘刮目相對(괄목상대)’의 유래이다.
- 15 (매)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가는 곳을 알려 드리고,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뵈고 귀가했음을 알려 드림.
- 16 (매) ‘出告反面’은 ‘출곡반면’으로 읽는다. ‘告(고)’는 윗 사람에게 말씀드려 알리는 상황에서는 ‘곡’으로 읽는다.
- 17 주어진 글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함.’을 뜻하는 성어 ‘父慈子孝(부자자효)’를 설명하는 글이다.
- 18 兄友弟恭(형우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함. → ㉠ ‘友(우)’는 ‘우애(형제간의 사랑)’라는 뜻으로 쓰였다.
- 19 有朋(유봉), 自遠方來(자원방래), 不亦樂乎(불역락호?):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 ㉠ ‘自(자)’는 ‘~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였다.

- 20 ‘不亦樂乎(불역락호)’에서 ㉠ ‘樂’은 ‘즐길 (락)’으로 쓰였으므로 ‘락’으로 읽는다.
- 21 벼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매우 즐겁다는 내용의 글로, ‘우정’을 주제로 한다.
- 22 ‘乎(호)’는 문장의 맨 뒤에 있으면 주로 ‘~가?’로 풀이하며,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다.  
① 有 있을 (유), ② 自 스스로 (자), ③ 方 모 (방), ④ 來 올 (래)
- 23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 24 문장의 뒤에 쓰여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 25 (1) (가) 家和萬事成  
(2) (나)의 풀이: 무릇 한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 마음이 화평하면 집안에 길하고 좋은 일들이 반드시 모일 것이다.

### III

## 더불어 살아가다

### 06 의를 실천하는 삶

#### 소단원 평가 문제

65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②

- 01 제시된 설명은 ‘公益(공익)’의 풀이이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한자는 ‘公 공평할 (공)’이다.  
① 先 먼저 (선), ② 範 법, 모범 (범), ④ 私 사사로울 (사), ⑤ 德 덕 (덕)
- 02 ㄱ. 先 먼저 (선)－後 뒤 (후)  
ㄴ. 公 공평할 (공)－사사로울 (사)  
ㄷ. 陰 그늘 (음)－陽 별 (양)  
ㄹ. 德 덕 (덕)－報 갚을 (보)  
따라서 뜻이 상대되는 한자끼리 연결된 것은 ㄱ, ㄴ, ㄷ이다.
- 03 ① ‘垂範(수범)’은 ‘모범[範]을 보이다[垂].’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範→垂’이다.  
② ‘先公(선공)’은 ‘공적[公]인 일을 먼저[先] 하다.’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公→先’이다.  
③ ‘後私(후사)’는 ‘사적[私]인 일을 뒤[後]로 미루다.’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私→後’이다.  
④ ‘及人(급인)’은 ‘남[人]에게 미치다[及].’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人→及’이다.  
⑤ ‘陰德(음덕)’은 ‘남이 모르는[陰] 덕행[德].’으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陰→德’이다.  
따라서 풀이 순서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 04 ① (가) ‘率先垂範(솔선수범)’의 ‘率’은 ‘솔’로 읽는다.  
② (나) ‘先公後私(선공후사)’에서 마지막에 풀이하는 것은 ‘後(후)’이다.  
④ (래) ‘陰德陽報(음덕양보)’에서 ‘陰’은 ‘남이 모르게’로 풀이한다.  
⑤ (래) ‘陰德陽報(음덕양보)’에서 ‘陽’은 ‘양’으로 읽는다.
- 05 (가)는 ‘의로움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로 풀이하며, 여기서 ‘爲’는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06 (나)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라고 풀이한다. 따라서 보답을 바라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②의 상황에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 07 함께 살아가는 지혜

### 소단원 평가문제

73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7 ⑤

- 01 제시된 설명은 ‘協同(협동)’의 풀이이다.  
① 難 어려울 (난), ② 鳴 울 (명), ③ 飯 밥 (반), ⑤ 相 서로 (상)
- 02 ① ‘孤掌(고장)’은 ‘외[孤]손뼉[掌].’으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孤→掌’이다.  
② ‘十匙(십시)’는 ‘열[十] 숟가락[匙].’으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十→匙’이다.  
③ ‘同苦(동고)’는 ‘괴로움[苦]을 함께하다[同].’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苦→同’이다.  
④ ‘相扶(상부)’는 ‘서로[相] 돕다[扶].’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相→扶’이다.  
⑤ ‘相助(상조)’는 ‘서로[相] 돕다[助].’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相→助’이다.  
따라서 풀이 순서가 다른 것은 ③이다.
- 03 ① 難 어려울 (난)－鳴 울 (명)  
② 孤 외로울 (고)－掌 손바닥 (장)  
③ 匙 숟가락 (시)－飯 밥 (반)  
④ 苦 쓸, 괴로울 (고)－樂 즐길 (락)  
⑤ 扶 도울 (부)－助 도울 (조)  
따라서 뜻이 상대되는 한자끼리 연결된 것은 ④이다.
- 04 ‘同苦同樂(동고동락)’에서 ‘樂’은 ‘락’으로 읽는다.
- 05 ‘凡鄉之約(범향지약)’은 ‘무릇 마을의 약속’으로 풀이하므로, 여기서 ㉠ ‘之(지)’는 ‘~의’로 풀이한다.
- 06 제시문은 ‘鄉約(향약)’에 대한 설명이다.  
① 患難(환난) ② 德業(덕업) ③ 禮俗(예속) ④ 過失(과실)
- 07 ⑤ ‘相(상)’은 모두 ‘서로’로 풀이한다.

## 08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 소단원 평가문제

81쪽

- 01 ⑤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⑤

- 01 제시된 설명은 ‘應急處置(응급 처치)’의 풀이이다.  
① 待避(대피), ② 傳播(전파), ③ 保護(보호), ④ 階段(계단)
- 02 ㉠ ‘患 근심 (환)’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한자는 ‘危 위태 할 (위)’이다.  
① 備 갖추, 준비 (비), ② 時 때 (시), ③ 安 편안할 (안), ⑤ 全 온전할 (전)
- 03 (나) ‘晩時之歎(만시지탄)’의 길뜻은 ‘늦었을 때의 탄식.’으로, 여기서 ㉡ ‘之(지)’는 ‘~의’로 풀이한다. (라) 萬全之策(만전지책)의 길뜻은 ‘만 가지의 완전한 계책.’으로, 여기서 ㉢ ‘之(지)’는 ‘~한’으로 풀이한다.
- 04 ‘無 없을 (무)’와 ‘有 있을 (유)’는 서로 뜻이 상대되는 한자이다. 따라서 이와 관계가 가장 비슷한 것은 ②의 ‘遠 멀 (원)’과 ‘近 가까울 (근)’이다.  
① 人 사람 (인)－遠 멀 (원)  
③ 慮 생각할 (려)－憂 근심 (우)  
④ 必 반드시 (필)－近 가까울 (근)  
⑤ 近 가까울 (근)－憂 근심 (우)
- 05 ‘戰戰(전전)’은 ‘몹시 두려워서 별별 땀.’이라는 뜻이다.
- 06 ① (가)에서 ‘遠慮(원려)’는 ‘멀리 생각함.’을 뜻한다.  
② (가)에서 ‘必(필)’은 ‘반드시’를 뜻한다.  
③ (나)에서 ‘如(여)’는 ‘~와 같다.’를 뜻한다.  
④ (나)는 깊은 연못에 가까이 가거나 얇은 얼음을 밟을 때와 같이 늘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 시험 대비 문제

86~88쪽

-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①    10 ④  
11 ④    12 ⑤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③    18 ①    19 ④    20 ⑤  
21 ③    22 ④    23 ⑤    24 해설 참고  
25 해설 참고

- 01 義人(의인): 의로운 사람.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義 옳을 (의)’이다.  
② 萬 일만 (만), ③ 天 하늘 (천), ④ 公 공평할 (공), ⑤ 私 사사로울 (사)
- 02 三一節(삼일절), 制憲節(제헌절), 光復節(광복절), 開天節(개천절)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節 마디, 기 녘일 (절)’이다.  
① 時 때 (시), ② 範 법 (범), ④ 備 갖추 (비), ⑤ 全 온전할 (전)

03 ① 先 먼저 (선) - 後 뒤 (후)

② 公 공평할 (공) - 私 사사로울 (사)

③ 陰 그늘 (음) - 陽 별 (양)

④ 過 잘못 (과) - 失 잃을, 잘못 (실)

⑤ 有 있을 (유) - 無 없을 (무)

④의 過와 失은 뜻이 비슷한 한자이다.

04 제시된 설명은 ‘心肺蘇生術(심폐 소생술)’의 풀이이므로, 빈칸에 알맞은 한자는 ‘蘇 되살아날 (소)’이다.

① 疏 트일 (소), ② 率 거느릴 (솔) / 비율 (률), ③ 束 묶을 (속), ④ 復 돌아올 (복) / 다시 (부)

05 제시된 설명은 ‘集團(집단)’의 풀이이다.

① 公益(공익), ② 協同(협동), ③ 責任(책임), ⑤ 階段(계단)

06 엘리베이터 대신 ㉠ 階段(계단) 이용하기, 비상구를 이용해 밖으로 ㉡ 待避(대피)하기,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 ㉢ 傳播(전파)하기, 젖은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 ㉣ 保護(보호)하기.

② 責任(책임)은 들어가지 않는 어휘이다.

07 應急處置(응급 처치): 부상이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조치와 간호 방법.

① 義兵(의병), ② 結束(결속), ③ 蘇生(소생), ④ 待避(대피)

08 協同(협동):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① 義人(의인), ③ 集團(집단), ④ 義兵(의병), ⑤ 階段(계단)

09 (가) ‘率先垂範(솔선수범)’에서 ‘率’은 ‘솔’로 읽는다.

10 (라) ‘陰德陽報(음덕양보)’는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보답을 받음.’이라는 뜻으로, ‘報’는 ‘보답’을 뜻한다.

11 ① ‘垂範(수범)’은 ‘모범[範]을 보이다[垂].’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範 → 垂’이다.

② ‘後私(후사)’는 ‘사적인[私] 일을 뒤[後]로 미루다.’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私 → 後’이다.

③ ‘及人(급인)’은 ‘남[人]에게 미치다[及].’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人 → 及’이다.

④ ‘孤掌(고장)’은 ‘외[孤]손뼉[掌].’으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孤 → 掌’이다.

⑤ ‘難鳴(난명)’은 ‘울기[鳴] 어렵다[難].’으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鳴 → 難’이다.

따라서 풀이 순서가 다른 것은 ④이다.

12 ‘수사란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지닌 실사 중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⑤ 十匙一飯(십시일반)’에 ‘十 열 (십)’과 ‘一 하나 (일)’이 수사로 쓰였다.

13 개인의 사적인 일보다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미룸.’을 뜻하는 ‘先公後私(선공후사)’가 알맞다.

② 有備無患(유비무환), ③ 過失相規(과실상규), ④ 晚時之歎(만시지탄), ⑤ 如履薄氷(여리박빙)

14 施恩勿求報(시은물구보), 與人勿追悔(여인물추회).: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 → 이 글은 어떠한 일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陰德陽報(음덕양보)’는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보답을 받음.’이라는 뜻으로,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담고 있으므로 제시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① 有備無患(유비무환), ② 晚時之歎(만시지탄), ④ 居安思危(거안사위), ⑤ 萬全之策(만전지책)

15 축구는 선수 한 명의 힘만으로 이기기 어려운 스포츠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이라는 뜻의 ‘孤掌難鳴(고장난명)’이 가장 알맞다.

① 率先垂範(솔선수범), ② 萬全之策(만전지책), ③ 推己及人(추기급인), ④ 陰德陽報(음덕양보)

16 ④ (라) ‘晚時之歎(만시지탄)’에서 ‘歎(탄)’은 ‘탄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7 ① ‘同苦(동고)’는 ‘괴로움[苦]을 함께하다[同].’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苦 → 同’이다.

② ‘同樂(동락)’은 ‘즐거움[樂]을 함께하다[同].’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樂 → 同’이다.

③ ‘相扶(상부)’는 ‘서로[相] 돕다[扶].’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相 → 扶’이다.

④ ‘無患(무환)’은 ‘근심[患]이 없다[無].’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患 → 無’이다.

⑤ ‘思危(사위)’는 ‘위태로움[危]을 생각하다[思].’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危 → 思’이다.

따라서 풀이 순서가 다른 것은 ③이다.

18 태풍이 북상할 것을 대비하여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실패의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하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뜻의 ‘萬全之策(만전지책)’이 가장 알맞다.

② 同苦同樂(동고동락), ③ 晚時之歎(만시지탄), ④ 十匙一飯(십시일반), ⑤ 推己及人(추기급인)

#### [19~23] 풀이

(가) 의로움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나)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

(다) 무릇 마을의 약속은 넷이니, 첫째는 ‘덕을 쌓는 일은 서로 권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허물과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 주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예속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하고, 넷째는 ‘근심과 어려움에서 서로 구휼하는 것’을 말한다.

(라)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마)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이 하고, 얕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 19 ① ㉠: 행하다. ② ㉡: 베풀다. ③ ㉢: 주다. ⑤ ㉤: 밟다.  
 20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실사이다. (타)에 쓰인 수사는 ‘四(사)’, ‘一(일)’, ‘二(이)’, ‘三(삼)’, ‘四(사)’로, 이를 모두 더하면  $4+1+2+3+4=14$ 이다.  
 21 (타)는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鄉約)’을 설명하는 글이다.  
 22 ‘居安思危(거안사위)’는 ‘편안함에 놓여 있어도 위태로움을 생각함.’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라는 뜻의 (라)와 가장 관련이 있다.  
 23 ⑤ 戰戰兢兢(전전긍긍)  
 24 (1) 풀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  
 (2) 한자: 勿, ‘勿(물)’은 ‘~하지 말라.’로 풀이하므로, 이 문장의 유형을 명령문으로 만드는 핵심 한자이다.  
 25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침. →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보아 내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음.

## IV 사람답게 살아가다

### 09 나를 돌아보는 시간

#### 소단원 평가 문제

97쪽

-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②

- 01 身 몸 (신) - 信 믿을 (신)  
 ① 疑 의심할 (의) - 冥 어두울 (명)  
 ③ 愛 사랑 (애) - 善 착할 (선)  
 ④ 改 고칠 (개) - 他 다를 (타)  
 ⑤ 猶 오히려 (유) - 重 무거울 (중)  
 02 過敏(과민): 감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함.  
 過誤(과오): 부주의나 게으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은 ‘지나치다’, ㉡은 ‘잘못’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03 ① 自我(자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  
 ③ 冥想(명상):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④ 過程(과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⑤ 省察(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04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중요함을 이르는 말.  
 05 ① ㉠: ‘날마다’로 풀이한다.  
 ② ㉡: ‘위하다’로 풀이한다.  
 ③ ㉢: ‘불’로 읽는다.  
 ⑤ ㉤: ‘전하여 받은 것(스승에게서 가르침으로 전하여 받은 것)’으로 풀이한다.  
 06 ‘呑(오)’는 ‘나’를 뜻하는 한자이며, 글에서 ‘남(다른 사람)’을 뜻하는 한자인 ‘人(인)’이 ‘呑(오)’와 상대되는 뜻으로 쓰였다.

### 10 포용할 줄 아는 마음

#### 소단원 평가 문제

105쪽

- 01 ①    02 ①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②

- 01** 差 다를 (차) - 異 다를 (이)  
 ② 共 함께 (공) - 存 있을 (존)  
 ③ 容 얼굴 (용) - 裝 꾸밀 (장)  
 ④ 易 바꿀 (역) / 쉬울 (이) - 思 생각 (사)  
 ⑤ 心 마음 (심) - 深 깊을 (심)
- 02** 包함 쌀 (포), 머금을 (함)  
 包裝 쌀 (포), 꾸밀 (장)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包 쌀 (포)’이다.  
 ② 差 다를 (차), ③ 辭 말씀 (사), ④ 異 다를 (이), ⑤ 義  
 옳을 (의)
- 03** (나)에서 ‘易’은 ‘바꿀 (역)’으로 쓰였으므로, (나)는 ‘역지사  
 지’로 읽는다.  
 (나)는 ‘예의염치’로 읽는다. 따라서 ㉠의 독음은 ‘역’, ㉡의  
 독음은 ‘예’이다.
- 04** ㉠ (가) ‘仁者無敵(인자무적)’에서 仁(인)은 ‘어질다’를 뜻  
 한다.  
 ② (나) ‘易地思之(역지사지)’에서 地(지)는 ‘처지’를 뜻  
 한다.  
 ④ (다) ‘禮義廉恥(예의염치)’에서 恥(치)는 ‘부끄러움’  
 을 뜻한다.  
 ⑤ (라) ‘辭讓之心(사양지심)’에서 之(지)는 ‘~하는’으로  
 풀이한다.
- 05** ㉠ ‘成’ 이룰 (성)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한자는 ‘就 나아  
 갈, 이룰 (취)’이다.  
 ① 讓 사양할 (양), ② 壤 흙덩이 (양), ③ 擇 가릴 (택),  
 ⑤ 深 깊을 (심)
- 06** ㉡ ‘不擇細流(불택세류)’는 ‘가는[細] 물줄기[流]를 가  
 리지[擇] 않는다[不].’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細 →  
 流 → 擇 → 不’이다.
- 07** 적은 양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 태산, 가는 물줄기를 가리  
 지 않는 황하와 바다의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 11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세

### 소단원 평가 문제

113쪽

- 01 ②    02 ①    03 ④    04 ①    05 ④  
 06 ③    07 ①

- 01** 技 재주 (기) - 機 기계, 기회 (기)  
 ① 變 변할 (변) - 知 알 (지)  
 ③ 苟 진실로 (구) - 又 또 (우)  
 ④ 入 들 (입) - 穴 구멍 (혈)  
 ⑤ 應 응할 (응) - 臨 임할 (림)
- 02** 新製品 새로울 (신), 지을, 만들 (제), 물건 (품). ‘新 새  
 로울 (신)’과 뜻이 반대되는 한자는 ‘故 예 (고)’이다.  
 ② 強 강할 (강), ③ 半 절반 (반), ④ 應 응할 (응), ⑤  
 就 나아갈 (취)
- 03** 日就月將(일취월장):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나아  
 갈. → ‘將(장)’은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04** ‘용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  
 리석음.’을 뜻하는 ‘刻舟求劍(각주구검)’의 유래이다.  
 ② 溫故知新(온고지신), ③ 臨機應變(임기응변), ④  
 日就月將(일취월장), ⑤ 改過遷善(개과천선)
- 05** 不入虎穴(불입호혈), 不得虎子(부득호자). ㉠은 ‘불’,  
 ㉡은 ‘부’로 읽는다.
- 06** ‘不入虎穴(불입호혈)’은 ‘호랑이[虎] 굴[穴]에 들어가지  
 [入] 않는다[不].’로 풀이하므로 풀이 순서는 ‘虎 → 穴  
 → 入 → 不’이다.
- 07** (가)는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는 매일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 시험 대비 문제

118~120쪽

- |          |      |      |          |      |
|----------|------|------|----------|------|
| 01 ①     | 02 ① | 03 ① | 04 ⑤     | 05 ⑤ |
| 06 ④     | 07 ② | 08 ① | 09 ③     | 10 ④ |
| 11 ①     | 12 ③ | 13 ② | 14 ①     | 15 ⑤ |
| 16 ②     | 17 ③ | 18 ② | 19 ⑤     | 20 ① |
| 21 ④     | 22 ④ | 23 ③ | 24 해설 참고 |      |
| 25 해설 참고 |      |      |          |      |

- 01** 翫 익힐 (습)  
**02** 過 잘못 (과) - 誤 그르칠 (오)  
 ② 擇 가릴 (택) - 思 생각 (사)  
 ③ 敵 대적할 (적) - 能 능할 (능)  
 ④ 應 응할 (응) - 將 장수 (장)  
 ⑤ 刻 새길 (각) - 仁 어질 (인)
- 03** ㉠ 基 터 (기) - 技 재주 (기)  
 ㉡ 忠 충성 (충) - 恥 부끄러워할 (치)  
 ㉢ 讓 사양할 (양) - 壤 흙덩이 (양)  
 ㉣ 故 예 (고) - 細 가늘 (세)

㉠ 將 장수(장) - 穴 구멍(혈)

㉡ 苟 진실로(구) - 及 미칠(급)

독음이 같은 한자끼리 연결한 것은 ㉠, ㉡이므로, 총 2개이다.

04 제시된 글은 ‘省 살필(성)’을 설명하고 있다.

① 愛 사랑(애), ② 溫 따뜻할(온), ③ 劍 칼(검), ④ 善 착할(선)

05 過敏(과민): 감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함.

超過(초과):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過程(과정): 일이 되어가는 경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過 지나칠, 잘못(과)’이다.

① 流 흐를(류), ② 冥 어두울(명), ③ 易 바꿀(역) / 쉬울(이), ④ 恥 부끄러워할(치)

06 懷疑 품을(회), 의심할(의)

07 苟日新(구일신), 日日新(일일신), 又日新(우일신).

新技術(신기술) / 新製品(신제품) / 新記錄(신기록)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新 새로울(신)’이다.

① 善 착할(선), ③ 愛 사랑(애), ④ 禮 예절(례), ⑤ 義 옳을(의)

08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그 사람)을 생각함. → ㉠ ‘之(지)’가 ‘그것(그 사람)’으로 쓰였다.

他山之石(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 → ㉡ ‘之(지)’가 ‘~의’로 쓰였다.

09 ① 禮義廉恥(예의염치): 예절[禮], 의리[義], 염치[廉], 부끄러움[恥].

② 他山之石(타산지석): 다른[他] 산(山)의[之] 돌[石].

③ 刻舟求劍(각주구검): 배[舟]에 새겨서[刻] 칼[劍]을 찾음[求].

④ 日就月將(일취월장): 날[日]마다 나아가고[就] 달[月]마다 나아감[將].

⑤ 自重自愛(자중자애): 자신[自]을 소중히 여기고[重] 자신[自]을 사랑함[愛].

따라서 풀이 순서가 다른 것은 ③ 刻舟求劍(2143)이다.

10 [가로]에 해당하는 성어는 ‘他山之石(타산지석)’, [세로]에 해당하는 성어는 ‘辭讓之心(사양지심)’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之(지)’이다.

11 제시된 설명은 過猶不及(과유불급)의 뜻이다.

② 禮義廉恥(예의염치), ③ 刻舟求劍(각주구검), ④ 日就月將(일취월장), ⑤ 臨機應變(임기응변)

12 ‘辭讓之心(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여 남에게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말한다.

13 ① 臨機應變 - 임기응변, ③ 仁者無敵 - 인자무적, ④ 禮義廉恥 - 예의염치, ⑤ 溫故知新 - 온고지신

14 自我(자아), 自重自愛(자중자애)

② 己 몸(기), ③ 信 믿을(신), ④ 吾 나(오), ⑤ 身 몸(신)

15 禮義廉恥(예의염치):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① 時 때(시), ② 見 볼(견), ③ 想 생각(상), ④ 壤 흙덩이(양)

16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그 사람)을 생각함. ㉠ ‘猶(유)’는 ‘같다’의 뜻으로 쓰였고, ㉡ ‘地(지)’는 ‘처지’의 뜻으로 쓰였다.

17 刻舟求劍(각주구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18 제시된 글은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나아감.’을 뜻하는 ‘日就月將(일취월장)’의 유래이다.

19 글에서 ‘乎(호)’는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 중 ‘어조사’로 쓰였으며, 주로 문장의 뒤에 쓰여 의문을 나타낸다.

① 吾 나(오), ② 三 셋(삼), ③ 身 몸(신), ④ 謨 꾀, 도모할(모)

20 ㉠ ㉡ ‘성’으로 읽는다.

③ ㉢ ‘위하다’로 풀이한다.

④ ㉣ ‘남(다른 사람)’으로 풀이한다.

⑤ ㉤ ‘전하여 받은 것’으로 풀이한다.

21 朋友(붕우):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① 吾身(오신): 나 자신, ② 爲人(위인): 남을 위하다.

③ 不忠(불충): 정성을 다하지 않다. ⑤ 不信(불신): 믿음이 없다. 믿지 않다.

22 不入虎穴(불입호혈), 不得虎子(부득호자).

㉠ 不信(불신), ㉡ 不足(부족), ㉢ 不忠(불충), ㉣ 過猶不及(과유불급)

23 제시된 내용은 ‘진실로 어느 날에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는 뜻을 지닌 ‘苟日新(구일신), 日日新(일일신), 又日新(우일신)’의 유래이다.

24 (1) 풀이: 태산은 (작은 양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2) 한자: 大

25 예시 ‘虎穴(호혈)’은 성과를 얻기 위해 마땅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상황 등을 의미하며, ‘虎子(호자)’는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한다.

## V 미래를 밝히다

### 12 예술을 향한 열정

#### 소단원 평가 문제

129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①    07 ⑤

- 01 熱情 더울 (열), 뜻 (정) / 熱帶 더울 (열), 띠 (대)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熱 더울 (열)’이다.  
② 凍 얼 (동), ③ 却 물리칠 (각), ④ 律 법칙 (률), ⑤ 拍 칠 (박)
- 02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욕을 잇을 정도로 그림에 몰입하는 이성과 가장 관련 있는 직업은 ‘화가(畫家)’이다.
- 03 ㉠은 ‘(이징이) 울면서도[泣] 눈물[淚]을 끌어당겨[引] (그리고)[而] 새[鳥]를 이루니[成]’로 풀이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풀이하는 한자는 ‘成 이를 (성)’이다.
- 04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차가위망영욕어화자야).: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욕을 잇은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 ‘於 어조사 (어)’는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로, ‘~에서’라는 뜻으로 쓰였다.
- 05 通國之善歌者也(통국지선가자야).: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 ㉠ 善(선)은 보통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06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通國之善歌者]’이라고 하였고, ‘一闋(일결)’은 ‘한 곡이 끝남.’으로 풀이하므로 문맥상 ‘肄 익힐 (이)’는 ‘노래를 연습함.’으로 풀이할 수 있다.
- 07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모래를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에 모래가 가득 찬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학산수의 모습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熱情(열정)’을 느낄 수 있다.  
① 音階(음계), ② 濟唱(제창), ③ 榮辱(영욕), ④ 拍子(박자)

### 13 의술에 대한 진심

#### 소단원 평가 문제

137쪽

- 01 ①    02 ①    03 ⑤    04 ②    05 ⑤  
06 ①    07 ①

- 01 제시된 설명은 ‘倍數(배수)’의 풀이이다.  
② 確率(확률), ③ 疾病(질병), ④ 鎮痛(진통), ⑤ 免疫(면역)
- 02 ② b: 아니다, ③ c: 어찌, ④ d: ~것, ⑤ e: 오직
- 03 行吾志而已(행오지이).: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일 뿐이다. → ㉠은 ‘~일 뿐이다.’로 풀이하며, ‘獨閭巷窮民耳(독여항궁민이).: 오직 민간의 어려운 백성뿐이다.’의 ‘耳’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04 寧少吾輩哉(영소오배재)? : 어찌 우리 같은 무리(의원)가 적겠는가? → 글의 주인공은 의술을 행하는 의원이므로, 우리 같은 무리는 ‘의원’을 뜻한다.
- 05 ‘活人(활인)’은 ‘사람[人]을 살리다[活].’로 풀이하므로, 주인공의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의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① 今年(금년), ② 四十(사십), ③ 數十(수십), ④ 萬人(만인)
- 06 復數十年(부수십년).: 다시 수십 년이면, → ㉠ 復은 ‘회복할 (복)’, ‘다시 (부)’로 쓰이며, 문맥상 여기서는 ‘다시 (부)’로 쓰였다.
- 07 글의 주인공은 사람을 살린 것이 만 명에 이르면 자신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 14 세상을 바꾸는 발명

#### 소단원 평가 문제

145쪽

-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⑤

- 01 제시된 설명은 ‘重力(중력)’의 풀이이다.  
① 創意(창의), ② 創造(창조), ③ 創刊(창간), ④ 慣性(관성)
- 02 唯起石與運石(유기석여운석).: 오직 돌을 세우는 것과 돌을 운반하는 것. → 이 문장에서 與(여)는 ‘~와(과)’로 쓰였다.
- 03 唯起石與運石(유기석여운석), 洵費力而糜財(순비력이미재).: 오직 돌을 세우는 것과 돌을 운반하는 것이 진실로 힘을 쓰게 하고 재물을 소비하게 한다.

- 04 글의 주인공은 '기중소가(起重小架)'를 만들어 돌을 쌓아 수원에 '성(城)'을 만들고자 하였다.  
 ① 石 돌 (석), ② 築 쌓을 (축), ③ 起 일어날 (기), ⑤ 財 재물 (재)
- 05 參以新制(참이신제).: 새로운 제도를 참고하다.
- 06 俾用于城華之役(비용우성화지역).: 수원에 성을 쌓는 일에 쓰이게 하였다. → 문맥상 '華 빛날 (화)'는 '오늘날의 수원'을 가리킨다.
- 07 문맥상 ㉠ '俾 하여금 (비)'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시험 대비 문제

150~152쪽

- |          |      |      |          |      |
|----------|------|------|----------|------|
| 01 ①     | 02 ② | 03 ④ | 04 ③     | 05 ⑤ |
| 06 ③     | 07 ② | 08 ⑤ | 09 ③     | 10 ① |
| 11 ⑤     | 12 ③ | 13 ② | 14 ③     | 15 ④ |
| 16 ⑤     | 17 ④ | 18 ⑤ | 19 ③     | 20 ④ |
| 21 ③     | 22 ⑤ | 23 ④ | 24 해설 참고 |      |
| 25 華, 수원 |      |      |          |      |

- 01 冷凍 찰 (랭), 얼 (동)  
 冷却 찰 (랭), 물리칠 (자)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冷 찰 (랭)이다.  
 ② 熱 더울 (열), ③ 泣 울 (음), ④ 淚 눈물 (루), ⑤ 沙 모래 (사)
- 02 熱情(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① 疾 병 (질), ③ 滿 찰 (만), ④ 創 비롯할 (창), ⑤ 洵 진실로 (순)
- 03 齊唱(제창): 같은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함.  
 ① 音階(음계), ② 創作(창작), ③ 確率(확률), ⑤ 創造(창조)
- 04 鎮痛(진통): 아픈 것을 가라앉혀 멎게 하는 일.  
 ① 倍數(배수), ② 確率(확률), ④ 銳角(예각)은 수학과 관련 있는 어휘이며, ⑤ 拍子(박자)는 음악과 관련 있는 어휘이다.
- 05 浮力(부력), 重力(중력), 彈性力(탄성력)  
 ① 制 지을 (제), ② 刊 펴낼 (간), ③ 自 스스로 (자), ④ 意 뜻 (의)
- 06 慣性 익숙할 (관), 성품, 성질 (성)
- 07 제시된 설명은 '確率(확률)'의 풀이이다.  
 ① 熱帶(열대), ③ 倍數(배수), ④ 齊唱(제창), ⑤ 重力(중력)

#### [08~14] 풀이

- (가) (이징이)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이루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욕을 잇은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나)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산에 들어가 (노래를) 연습할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에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모래가) 나막신에 가득 차면 비로소 돌아왔다.

- 08 ㉠은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이루니,'로 풀이하며, 이징이 눈물을 먹물처럼 사용하여 새를 그렸다는 의미이다.
- 09 문맥상 ㉠ '於 어조사 (어)'는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로, '~에서'라는 뜻으로 쓰였다.
- 10 ㉡은 '한[一] 곡이 끝남[闋].'을 의미한다.
- 11 ㉢은 '(모래가) 나막신[屐]에 가득 차면[滿] 비로소[乃] 돌아왔다[歸].'로 풀이한다.
- 12 闋 마칠 (결)
- 13 온[通] 나라[國]에서[之] 노래[歌]를 (가장) 잘하는[善] 사람[者]이다[也].
- 14 (가)의 주인공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욕을 잇을 정도로 오직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주인공이 유명한 화가가 되어 출세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15~20] 풀이

내가 이 의술을 행하는 것은 그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는다. (중략) 저 귀하고 높은 자들에게 어찌 우리 같은 무리(의원)가 적겠는가?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길 것은 오직 민간의 어려운 백성뿐이다. (중략) 내가 이제 나이가 마흔 남짓이니, 다시 수십 년이면 만 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니, 사람을 살린 것이 만 명에 이르면 나의 일이 끝날 것이다.

- 15 復 회복할 (복), 다시 (부)
- 16 글의 주인공은 병을 고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술 醫術'을 행하는 사람이다.
- 17 글의 주인공은 민간의 어려운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으며, 살린 사람이 만 명에 이르면 자신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 18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길 것은 오직 민간[閭巷]의 어려운 백성[窮民]뿐이라고 하였다.
- 19 '吾今年四十餘(오금년사십여): 내가 이제 나이가 마흔 남짓이니' 부분에서 주인공의 나이가 40살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20 글의 주인공은 사람을 살린 것이 만 명에 이르면 자신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21~25] 풀이

성은 돌로써 쌓는 것이니 필요한 것은 오직 돌뿐이다. 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돌을 세우는 것과 돌을 운반하는 것이 진실로 힘을 쓰게 하고 재물을 소비하게 한다. (중략) 지금 옛사람들이 남긴 뜻을 취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하여, 기중소가 만들어 수원에 성을 쌓는 일에 쓰이게 하였다.

- 21 '以石築(이석축)'은 '돌로써 쌓는 것이니~'로 풀이하므로, ㉠ '以'는 '~로써'라는 뜻으로 쓰였다.
- 22 '필요한[須] 것[所]'은 오직[唯] 돌[石]뿐이다.'로 풀이한다.
- 23 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돌을 세우는 것과 돌을 운반하는 것이 진실로 힘을 쓰게 하고 재물을 소비하게 한다고 하였다.
- 24 (1) 독음: 기중소가  
(2) 풀이: 무거운 것을 세우는 작은 기구.
- 25 '華'. 오늘날의 수원을 가리킨다.

## VI 마음을 노래하다

### 15 고향 생각

#### 소단원 평가 문제

161쪽

-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5 ⑤  
06 ①

- 01 나. 碧 푸를 (벽) - 白 흰 (백), 다. 白 흰 (백) - 靑 푸를 (청)이 색깔을 나타내는 한자끼리 짝지어져 있다.  
ㄱ. 江 강 (강) - 碧 푸를 (벽)  
ㄴ. 靑 푸를 (청) - 花 꽃 (화)
- 02 故鄉 예 (고), 시골 (향) / 歸鄉 돌아갈 (귀), 시골 (향)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鄉 시골 (향)이다.  
① 今 이제, 지금 (금), ② 又 또 (우), ③ 胡 오랑캐 (호), ⑤ 亂 어지러운 (란)
- 03 ①에 쓰인 '鄉愁(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이라는 뜻이다. 문맥상 어휘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액체 화장품의 하나. 향료를 알코올 따위에 풀어 만듦.'을 뜻하는 '香水(향수)'로 써야 한다.
- 04 대우법(對偶法)이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對句)의 '靑 푸를 (청)'과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출구(出句)의 같은 위치에 있는 '碧 푸를 (벽)'이다.  
① 江 강 (강), ③ 鳥 새 (조), ④ 遺 더욱 (유), ⑤ 白 흰 (백)
- 05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韻)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압운법(押韻法)'이라고 하며,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이 시의 운자는 燃(연)과 年(년)이다.
- 06 ② '江(강)'은 '山(산)'과 대우를 이룬다.  
③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④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은 '春 봄 (춘)'이다.  
⑤ 푸른색과 흰색, 붉은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 16 애절한 그리움

#### 소단원 평가 문제

169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①

- 01 '便紙(편지), 宅配(택배), 郵便局(우체국)'은 모두 '郵便(우편)'과 관련된 어휘이다.  
① 石路(석로), ② 紗窓(사창), ③ 夢魂(몽혼), ⑤ 誇張(과장)
- 02 제시된 설명은 '抒情(서정)'의 풀이이다.  
① 安否(안부), ③ 韻律(운율), ④ 門前(문전), ⑤ 詠歎(영탄)
- 03 '絶句(절구)'는 전체가 4구로 이루어진 근체시이며, 한 구가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형식을 '五言絶句(오언 절구)', 일곱 글자로 이루어진 형식을 '七言絶句(칠언 절구)'라고 한다.  
① 韻字(운자), ② 韻律(운율), ④ 律詩(율시), ⑤ 對偶(대우)
- 04 門前石路便成沙(문전석로변성사): 문(門) 앞[前]의 돌[石]길[路]은 곧[便] 모래[沙]가 되었겠지요[成]. →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한자는 '成(성)'이다.
- 05 이 시의 운자는 '何(하), 多(다), 沙(사)'이다. 운자는 주로 짝수 구의 끝에 다는데, 이 시처럼 첫째 구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
- 06 이 시의 형식은 일곱 글자가 4구로 이루어진 '칠언 절구(七言絶句)'이다.

## 17 한쪽의 그림 같은 시

### 소단원 평가문제

177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5 ②  
06 ⑤

- 01 [가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構圖(구도)', [세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圖鑑(도감)'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圖(도)'이다.  
② 形 모양(형), ③ 訪 찾을(방), ④ 野 들(야), ⑤ 詩 시(시)
- 02 제시된 설명은 '水墨淡彩畫(수묵 담채화)'의 풀이이다.  
① 略圖(약도), ② 靜物畫(정물화), ③ 抽象畫(추상화), ④ 眞景山水畫(진경 산수화)
- 03 不知身在畫圖中(부지신재화도중): 내 몸[身]이 그림[畫圖] 속[中]에 있는[在] 줄 몰랐네[知][不]. → 가장 먼저 풀이하는 한자는 '身(신)'이다.

- 04 이 시의 운자는 '空(공), 紅(홍), 中(중)'이다.
- 05 '秋陰(추음)'은 '구름 낀 가을 하늘'을 뜻하고, '落葉(낙엽)'은 '주로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뜻하므로, 시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① 四山(사산): 온 산. 사면에 빙 둘러서 있는 산들. ③ 溪橋(계교): 시냇가 다리. ④ 歸路(귀로): 돌아갈 길. ⑤ 畫圖(화도): 그림.
- 06 ⑤ '결구'에서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신이 동화된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 시험 대비 문제

182~184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③  
06 ⑤    07 ①    08 ④    0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④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③  
21 ②    22 ②    23 ①    24 해설 참고  
25 해설 참고

- 01 '使'의 음은 '사'이고, '江'의 부수는 '氵(水)'이며, '漠'은 '넓을, 사막(막)'이다. 따라서 대화에서 설명하는 한자는 '沙(모래)'이다.  
① 白 흰(백), ② 河 물(하), ③ 何 어찌(하), ⑤ 紗 비단(사)
- 02 ㄱ. 近 가까울(근) - 遠 멀(원), ㄴ. 前 앞(전) - 後 뒤(후)가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끼리 연결한 것이다.  
ㄷ. 便 편할(편) / 곧(변) - 安 편안할(안)  
ㄹ. 是 이(시) - 欲 하고자 할(욕)
- 03 '圖(도)'와 뜻이 비슷한 한자는 '畫(화)'이다.  
① 路 길(로), ② 歸 돌아갈(귀), ③ 溪 시내(계), ④ 野 들(야)
- 04 [가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戰亂(전란)', [세로]에 해당하는 어휘는 '倭亂(왜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亂(어지러울)'이다.  
① 失 잃을(실), ② 看 볼(간), ③ 恨 한(한), ④ 橋 다리(교)
- 05 제시된 내용은 '故鄉(고향)'의 뜻과 활용 예문이다.
- 06 眞景山水畫(진경 산수화):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우리나라의 산과 강 등 뛰어난 경치를 그대로 그린 산수화.  
① 到 이를(도), ② 過 지날(과), ③ 看 볼(간), ④ 直 곧을(직)
- 07 ㄴ. 地圖(지도):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ㄷ. 제시된 뜻은 '略圖(약도)'의 뜻이다.  
圖鑑(도감)은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이라는 뜻이다.

- 08 韻律(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비슷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거나 배열함으로써 만들 수 있음.  
 ① 落葉(낙엽), ② 戰亂(전란), ③ 便紙(편지), ⑤ 救護(구호)

**[09~12] 풀이**

- (가) 강물이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는 듯하네.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때인가?  
 (나) 근래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달빛이 창가에 비칠 때면 저의 한도 깊어진답니다. 만약 꿈속의 நீ가 다닌 자취가 남는다면, 문 앞의 돌길은 곧 모래가 되었겠지요.

- 09** 출구(出句)의 ‘碧 푸를 (벽)’과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대구(對句)의 같은 위치에 있는 ‘靑 푸를 (청)’이다.  
**10** (가)의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뜻하는 ‘향수(鄉愁)’와 가장 관련 있다.  
 ① 안분(安分):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킴.  
 ② 만족(滿足): 마음에 흡족함.  
 ③ 배려(配慮):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  
 ④ 문안(問安):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  
**11** ‘妾恨(첩한)’은 ‘저(화자)의 한’으로 풀이하는데, ‘妾(첩)’은 옛날의 여인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던 말이다.  
 ① 近來(근래): 가까운 요즈음. ② 安否(안부):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④ 夢魂(몽혼): 꿈속의 넋. ⑤ 門前(문전): 문 앞.  
**12** (가)의 운자는 ‘燃(연), 年(년)’이고, (나)의 운자는 ‘何(하), 多(다), 沙(사)’이다. ‘白(백)’은 운자가 아니다.

**[13~16] 풀이**

- (가) 강물이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는 듯하네.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때인가?  
 (나) 구름 낀 가을 하늘은 아득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네. 시냇가 다리 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묻는데,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 몰랐네.

- 13** ‘春 봄 (춘)’을 통해 (가)의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① 江 강 (강), ② 鳥 새 (조), ③ 山 산 (산), ⑤ 是 이 (시)  
**14** ‘秋陰(추음)’은 ‘구름 낀 가을 하늘’을 뜻하며, 여기서 ‘陰(음)’은 ‘구름’을 뜻한다.  
**15** ‘空 빌 (공)’은 색을 뜻하는 한자가 아니다.  
 ① 碧 푸를 (벽), ② 白 흰 (백), ③ 靑 푸를 (청), ⑤ 紅

붉을 (홍)

- 16** (가)의 운자는 ‘燃(연), 年(년)’이고, (나)의 운자는 ‘空(공), 紅(홍), 中(중)’이다.

**[17~20] 풀이**

- (가) 근래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달빛이 창가에 비칠 때면 저의 한도 깊어진답니다. 만약 꿈속의 நீ가 다닌 자취가 남는다면, 문 앞의 돌길은 곧 모래가 되었겠지요.  
 (나) 구름 낀 가을 하늘은 아득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네. 시냇가 다리 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묻는데,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 몰랐네.

- 17** (가)에서 ‘石路(석로)’는 ‘돌 (석), 길 (로)’ 자가 쓰여 ‘돌길’을 뜻한다.  
 ① 近來(근래): 가까운 요즈음. ② 安否(안부):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소식. ③ 紗窓(사창): 명주실로 거칠게 짠 비단으로 바른 창문. ④ 夢魂(몽혼): 꿈속의 넋.  
**18** (나)의 승구(承句)는 ‘落葉無聲滿地紅(낙엽무성만지홍).’으로,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네.’로 풀이한다. 따라서 ‘주로 늦가을에 기후 변화로 식물의 잎이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변한 잎.’을 뜻하는 ‘단풍’이 가장 관계있다.  
**19** 나. (가)의 운자는 ‘何(하), 多(다), 沙(사)’이다.  
 다. (나)의 전구와 결구는 내용상·어법상으로 짝을 이루지 않으므로 대우법이 쓰이지 않았다.  
**20** ㉠은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더해져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인의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나타낸 부분이다. (가)의 결구인 ‘門前石路便成沙(문전석로변성사)’ 또한 돌길이 닳아 모래가 될 정도로 꿈속에서 임의 집 앞을 자주 찾아갔다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나타냈다.

**[21~25] 풀이**

- (가) 강물이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는 듯하네.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때인가?  
 (나) 근래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달빛이 창가에 비칠 때면 저의 한도 깊어진답니다. 만약 꿈속의 நீ가 다닌 자취가 남는다면, 문 앞의 돌길은 곧 모래가 되었겠지요.  
 (다) 구름 낀 가을 하늘은 아득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네. 시냇가 다리 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묻는데,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 몰랐네.

- 21 今春看又過(금우간우과).: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 ㉠ ‘過’는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門前石路便成沙(문전석로변성사).: 문 앞의 돌길은 곧  
모래가 되었겠지요. → ㉡ ‘便’은 ‘곧’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22 (나)의 화자는 돌길이 닳아 모래가 될 정도로 꿈속에서 임  
의 집 앞을 자주 찾아갔다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① (가)와 같은 오언시는 주로 ‘2자 / 3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  
③ (나)에서 화자가 임의 안부를 묻는 것이나, 꿈속에서 돌  
길이 닳아 모래가 될 정도로 임을 자주 찾아갔다는 내용  
으로 보아 두 사람은 서로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화자는 ‘시냇가 다리[溪橋(계교)]’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물었다.  
⑤ (다)의 기구에서 시어 ‘秋陰(추음)’, 승구에서 시어 ‘落  
葉(낙엽)’을 보고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 23 (가)의 기구[江碧鳥逾白]가 출구(出句), 승구[山青花  
欲燃]가 대구(對句)로 서로 대우를 이룬다.
- 24 예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봄을 보내야 하는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겼다.
- 25 예시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화자가 말을 세우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  
럼 시로써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 Ⅶ 역사를 마주하다

### 18 지켜야 할 우리의 땅

#### 소단원 평가 문제

193쪽

-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①    07 ②

- 01 領海(영해), 領空(영공), 領域(영역).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領 거느릴 (령)’이다.  
① 國 나라 (국), ② 地 땅 (지), ③ 土 흙 (토), ④ 島 섬 (도)
- 02 ‘主 주인 (주)–權 권세 (권)’은 뜻이 상대되는 한자가 아  
니다.  
① 淸 맑을 (청)–濁 흐릴 (탁)  
② 得 얻을 (득)–失 잃을 (실)  
④ 遠 멀 (원)–近 가까울 (근)  
⑤ 彼 저것 (피)–此 이것 (차)
- 03 相去不遠(상거불원).: 서로[相]의 거리[去]가 멀지  
[遠] 않다[不]. → 이 문장에서 ‘去(거)’는 ‘거리’라는 뜻으  
로 쓰였다.
- 04 ㉠ ‘之’는 ‘그들’이라고 풀이하며, 앞 문장에 나온 ‘日本  
(일본)’을 가리킨다.  
① 于山(우산), ② 武陵(무릉), ③ 東海(동해), ④ 高  
麗(고려)
- 05 高麗得之於新羅(고려득지어신라).: 고려(高麗)가 그  
것[之]을 신라(新羅)에서[於] 얻었다[得]. → ‘得(득)’을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한다.
- 06 ‘在縣正東海中(재현정동해중).: 현의 정동쪽 바다 가  
운데에 있다.’ → 이 문장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알 수 있다.  
② 風日淸明(풍일청명).: 날씨가 맑다.  
③ 稱于山國(칭우산국).: ‘우산국’이라 불렀다.  
④ 高麗得之於新羅(고려득지어신라).: 고려가 그것을  
신라에서 얻었다.  
⑤ 元非日本之地(원비일본지지).: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 07 과거에는 ‘울릉도’를 ‘武陵(무릉)’이라 불렀다.  
① 于山(우산): 독도.  
③ 東海(동해): 동쪽 바다.  
④ 淸明(청명): 날씨가 맑고 밝음.  
⑤ 我朝(아조): 우리 왕조. (나에서는 조선(朝鮮)을 뜻  
한다.

## 19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 소단원 평가문제

201쪽

- 01 ①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④

#### 01 異 다를 (이) - 耳 귀 (이).

→ 두 한자는 독음이 모두 '이'이다.

② 標 표할 (표) - 讚 기릴 (찬)

③ 演 펼 (연) - 語 말씀 (어)

④ 終 마칠, 마침내 (종) - 伸 펼 (신)

⑤ 製 지을 (제) - 用 쓸 (용)

#### 02 概要(개요)

① 含蓄(함축):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

② 言辯(언변):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④ 讚辭(찬사):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말이나 글.

⑤ 文脈(문맥): 글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문장의 앞뒤 의미 관계.

#### 03 欲使人人易習(욕사인인이습): 사람들[人人]로 하여금[使] 쉽게[易] 익히게[習] 하다. → '人人(인인)'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 ~와(과), ② ㉡: ~와 더불어, ③ ㉢: 그러므로, ④ ㉣: 불쌍하다.

#### 04 '不'은 초성이 'ㄷ'이나 'ㄴ'인 한자 앞에서 대체로 '부'로 읽으므로 '不得'은 '부득'이라고 읽는다. 不得伸其情者(부득신기정자)는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不得(부득)'은 '~할 수 없다.'로 풀이한다.

#### 05 欲使人人易習(욕사인인이습), 便於日用耳(편어일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 '易'는 '쉬울 (이)', ㉡ '便'은 '편할 (편)'으로 쓰였으므로 각각 '이', '편'으로 읽는다.

#### 06 予爲此憫然(여위차민연):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 이 문장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세종 대왕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세종 대왕은 글을 몰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① 異乎中國(이호중국): 중국과 다르다.

② 不相流通(불상유통): 서로 통하지 않는다.

③ 所欲言(유소욕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⑤ 便於日用耳(편어일용이):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20 독립과 평화를 꿈꾸며

### 소단원 평가문제

209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①    05 ④  
06 ③

#### 01 醫師(의사):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義士(의사): 의로운 지사(志士).

① 獨立(독립):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됨.

② 國債(국채): 나라가 지고 있는 빚.

③ 報償(보상):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④ 平和(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 02 ㉠: 위하다, ㉡: 마침내, 드디어, ㉢: 조용히, ㉣: 나이

#### 03 '我 나 (아)'는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는 1인칭 대명사인 '余 나 (여)'이다.

① 骨 뼈 (골), ② 死 죽을 (사), ④ 和 화목할 (화), ⑤ 服 옷 (복)

#### 04 埋我骨於哈爾濱公園之傍(매아골어합이빈공원지방): 내[我] 뼈[骨]를 하얼빈[哈爾濱] 공원[公園]의 [之] 곁[傍]에[於] 묻다[埋]. →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한자는 '埋 묻을 (매)'이다.

#### 05 글의 주인공(안중근 의사)은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뼈를 하얼빈 공원의 곁에 묻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회복된 뒤를 기다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라고 하였다.

#### 06 글의 주인공(안중근 의사)은 '死何憾焉(사하감언)': 죽은들 어찌 유감이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묻는 형식의 의문문으로, '죽어도 유감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시험 대비 문제

214~216쪽

-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①    09 ②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②    15 ⑤  
16 ③    17 ③    18 ①    19 ③    20 ①  
21 ②    22 ④    23 ②  
24 해설 참고    25 해설 참고

#### 01 ③ 語 말씀 (어)

#### 02 淸濁(청탁), 風日淸明(풍일청명) → 빈칸에 들어갈 한

자는 ‘淸 ㅁㅁ을 (청)’이다.

- ① 善 착할 (선), ③ 愛 사랑 (애), ④ 禮 예절 (례), ⑤ 義 옳을 (의)

03 思 생각 (사) - 師 스승 (사)

- ② 守 지킬 (수) - 動 움직일 (동)  
③ 然 그러할 (연) - 通 통할 (통)  
④ 高 높을 (고) - 稱 일컬을 (칭)  
⑤ 望 바랄 (망) - 淸 ㅁㅁ을 (청)

04 債 빚 (채)

- ① 言 말씀 (언), ② 語 말씀 (어), ③ 說 말씀 (설), ④ 辭 말씀 (사)

05 領空 거느릴 (령 / 영), 빌, 하늘 (공)

06 言辯 말씀 (언), 말 잘할 (변)

- ① 淸濁 ㅁㅁ을 (청), 흐릴 (탁)  
② 遠近 멀 (원), 가까울 (근)  
③ 得失 얻을 (득), 잃을 (실)  
④ 彼此 저것 (피), 이것 (차)

07 意思(의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醫師(의사): 일정 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① 主權(주권), ② 概要(개요), ④ 演說(연설), ⑤ 獨立(독립)

08 不相流通(불상유통). 相去不遠(상거불원). →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相 서로 (상)’이다.

- ② 象 코끼리 (상), ③ 辭 말씀 (사), ④ 債 빚 (채), ⑤ 可 옳을 (가)

[09~12] 풀이

(가)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두 섬을) ‘우산국’이라 불렀고, 한편으로는 ‘울릉도’라고 불렀다.

(나) 이 섬은 고려가 그것을 신라에서 얻었고, 우리 왕조가 그것을 고려에서 얻었으니,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나라 땅은 그들(일본)에게 줄 수 없다.

09 ㉠에서 ‘可(가)’는 ‘~할 수 있다.’를 뜻하므로, 문맥상 ㉠은 ‘바라볼 수 있다.’로 풀이한다.

10 (가)에서 ‘鬱陵島(울릉도)’는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을 의미한다. 신라 때에는 두 섬을 ‘于山國(우산국)’이라고 불렀고, 한편으로는 ‘鬱陵島(울릉도)’라고 불렀다.

- ① 日本(일본), ② 高麗(고려), ③ 我朝(아조), ⑤ 正東海(정동해)

11 (가)에서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12 ㉡ ‘風日(풍일)’은 ‘바람과 별’이라는 뜻으로, ‘날씨’를 의미한다. ㉢ ‘我朝(아조)’는 ‘우리 왕조’라는 뜻으로, 여기서 ‘조선’을 의미한다.

[13~14] 풀이

(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나라 땅은 그들(일본)에게 줄 수 없다.

(나) 내 뼈를 하얼빈 공원의 곁에 묻다.

(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13 不可與之(불가여지). 而終不得伸其情者(이종부득신기정자). ‘不(불)’은 다음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ㄷ’, ‘ㄴ’일 때 대체로 ‘부’로 읽는다.

14 不可與之(불가여지).: 그들에게 줄 수 없다. → ㉠ ‘之(지)’는 ‘그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哈爾濱公園之傍(합이빈공원지방).: 하얼빈 공원의 곁. → ㉡ ‘之(지)’는 ‘~의’라는 뜻으로 쓰였다.

[15~17] 풀이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15 予爲此憫然(여위차민연).: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긴다. → ㉠ ‘爲(위)’는 ‘~라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6 欲使人人易習(욕사인인이습). 便於日用耳(편어일용이). 易는 ‘쉬울 (이)’, 便은 ‘편할 (편)’으로 쓰였다.

17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

① 이 글은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를 밝힌 글로, 우리나라 양반들이 한자를 선호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고 하였다.

④ 글의 주인공(세종 대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

⑤ 글의 주인공(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

[18~19] 풀이

(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나라 땅은 그들(일본)에게 줄 수 없다.

18 (가)에서 ㉠ 易(이)는 ‘쉽다’, (나)에서 ㉡ 與(여)는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9 祖宗疆土(조종강토), 不可與之(불가여지).: 조상[祖宗]에게서 물려받은 우리나라 땅[疆土]은 그들(일본)[之]에게 줄[與] 수[可] 없다[不]. →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한자는 ‘不 아닐 (불)’이다.

**[20~23] 풀이**

(가)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의 곁에 묻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회복된 뒤를 기다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라.” (중략) “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죽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니, 죽은들 어찌 유감이겠는가?” 하고 마침내 한복으로 바꾸어 입고 조용히 형장에 나아가니, (그의) 나이가 서른둘이었다.

(나)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0 (가)에서 ㉠ ‘我 나 (아)’는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는 1인칭 대명사인 ‘予 나 (여)’이다.

21 ㉡ ‘故土(고토)’는 ‘고향 땅’을 의미한다.

22 글의 주인공(안중근 의사)은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뼈를 하얼빈 공원의 곁에 묻으라고 하였다. 하얼빈은 중국에 있는 도시이다.

23 新製二十八字(신제이십팔자).: 새로[新] 스물여덟[二十八] 글자[字]를 만들었다[製]. →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한자는 ‘製 지을 (제)’이다.

24 • 國之語音+異+乎中國.: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

• 주어 - 國之語音, 서술어 - 異, 보어 - 乎中國

25 (1) 풀이: 죽은들 어찌 유감이겠는가?

(2) 유형: 의문문.

## 시험 전 잠깐 체크

### I 한문을 만나다

#### 01. 처음 만나는 한자

218~219쪽

##### 01

- |        |        |        |        |        |
|--------|--------|--------|--------|--------|
| (1) ④  | (2) ②  | (3) ③  | (4) ⑤  | (5) ③  |
| (6) ①  | (7) ②  | (8) ⑤  | (9) ⑤  | (10) ② |
| (11) ③ | (12) ④ | (13) ② | (14) ④ | (15) ④ |
| (16) ② | (17) ⑤ | (18) ⑤ | (19) ② |        |

##### 02

- |        |       |       |       |        |
|--------|-------|-------|-------|--------|
| (1) ②  | (2) ① | (3) ④ | (4) ② | (5) ④  |
| (6) ④  | (7) ④ | (8) ③ | (9) ① | (10) ② |
| (11) ③ |       |       |       |        |

- 03 ③    04 ④    05 ③    06 ③

#### 02. 슬기로운 한문 풀이

220~221쪽

##### 01

- |        |        |        |        |        |
|--------|--------|--------|--------|--------|
| (1) ④  | (2) ①  | (3) ⑤  | (4) ③  | (5) ③  |
| (6) ①  | (7) ②  | (8) ②  | (9) ④  | (10) ④ |
| (11) ④ | (12) ③ | (13) ⑤ | (14) ③ | (15) ③ |
| (16) ③ | (17) ③ | (18) ② | (19) ① | (20) ① |

##### 02

- |        |        |        |        |        |
|--------|--------|--------|--------|--------|
| (1) ④  | (2) ②  | (3) ①  | (4) ①  | (5) ④  |
| (6) ④  | (7) ④  | (8) ②  | (9) ③  | (10) ④ |
| (11) ② | (12) ⑤ | (13) ③ | (14) ④ | (15) ③ |
| (16) ③ | (17) ③ | (18) ④ | (19) ② | (20) ② |
| (21) ③ | (22) ⑤ |        |        |        |

- 03 ④    04 ②    05 ③

### II 행복을 키우다

#### 03. 노력의 결실

222~223쪽

##### 01

- |        |        |       |       |        |
|--------|--------|-------|-------|--------|
| (1) ④  | (2) ③  | (3) ④ | (4) ⑤ | (5) ②  |
| (6) ③  | (7) ②  | (8) ① | (9) ① | (10) ⑤ |
| (11) ⑤ | (12) ⑤ |       |       |        |

##### 02

- |        |       |       |       |        |
|--------|-------|-------|-------|--------|
| (1) ⑤  | (2) ② | (3) ④ | (4) ① | (5) ②  |
| (6) ①  | (7) ③ | (8) ④ | (9) ③ | (10) ② |
| (11) ③ |       |       |       |        |

##### 03

- |       |       |       |
|-------|-------|-------|
| (1) ② | (2) ③ | (3) ③ |
|-------|-------|-------|

##### 04

- |       |       |       |
|-------|-------|-------|
| (1) ④ | (2) ③ | (3) ④ |
|-------|-------|-------|

- 05 ④    06 ⑤    07 ②

#### 04. 진실한 우정

224~225쪽

##### 01

- |        |        |       |       |        |
|--------|--------|-------|-------|--------|
| (1) ①  | (2) ②  | (3) ⑤ | (4) ③ | (5) ②  |
| (6) ⑤  | (7) ②  | (8) ④ | (9) ① | (10) ③ |
| (11) ⑤ | (12) ④ |       |       |        |

##### 02

- |        |        |       |       |        |
|--------|--------|-------|-------|--------|
| (1) ②  | (2) ①  | (3) ① | (4) ② | (5) ③  |
| (6) ④  | (7) ③  | (8) ⑤ | (9) ④ | (10) ② |
| (11) ⑤ | (12) ④ |       |       |        |

##### 03

- |       |       |       |
|-------|-------|-------|
| (1) ③ | (2) ② | (3) ② |
|-------|-------|-------|

##### 04

- |       |       |       |
|-------|-------|-------|
| (1) ③ | (2) ④ | (3) ⑤ |
|-------|-------|-------|

- 05 ③    06 ④    07 ③

#### 05. 가족의 행복

226~227쪽

##### 01

- |        |        |        |        |        |
|--------|--------|--------|--------|--------|
| (1) ②  | (2) ③  | (3) ①  | (4) ①  | (5) ④  |
| (6) ①  | (7) ⑤  | (8) ⑤  | (9) ④  | (10) ⑤ |
| (11) ④ | (12) ② | (13) ② | (14) ⑤ |        |

##### 02

- |        |        |        |        |        |
|--------|--------|--------|--------|--------|
| (1) ③  | (2) ④  | (3) ⑤  | (4) ②  | (5) ①  |
| (6) ④  | (7) ②  | (8) ①  | (9) ①  | (10) ③ |
| (11) ② | (12) ① | (13) ④ | (14) ④ | (15) ③ |

##### 03

- |       |       |       |
|-------|-------|-------|
| (1) ④ | (2) ③ | (3) ⑤ |
|-------|-------|-------|

04

(1) ① (2) ③

05 ②

06 ②

07 ⑤

III 더불어 살아가다

06. 의를 실천하는 삶

228~229쪽

01

(1) ① (2) ⑤ (3) ③ (4) ④ (5) ②  
(6) ⑤ (7) ③ (8) ② (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⑤

02

(1) ③ (2) ⑤ (3) ① (4) ③ (5) ②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②

03

(1) ② (2) ⑤

04

(1) ① (2) ② (3) ⑤

05 ④

06 ④

07 ⑤

07. 함께 살아가는 지혜

230~231쪽

01

(1) ⑤ (2) ② (3) ④ (4) ② (5) ⑤  
(6) ③ (7) ④ (8) ④ (9) ④ (10) ①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⑤

02

(1) ① (2) ③ (3) ② (4) ④ (5) ②  
(6) ⑤ (7) ④ (8) ④ (9) ⑤ (10) ①  
(11) ① (12) ④ (13) ⑤

03

(1) ⑤ (2) ④ (3) ②

04

(1) ③ (2) ④ (3) ①

05 ④

06 ④

07 ⑤

08.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232~233쪽

01

(1) ⑤ (2) ④ (3) ② (4) ① (5) ④  
(6) ② (7) ③ (8) ① (9) ② (10) ③  
(11) ② (12) ③ (13) ③ (14) ④

02

(1) ⑤ (2) ④ (3) ④ (4) ② (5) ④  
(6) ②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③ (14) ④

03

(1) ② (2) ② (3) ②

04

(1) ② (2) ④ (3) ③

05 ⑤

06 ③

07 ③

IV 사람답게 살아가다

09. 나를 돌아보는 시간

234~235쪽

01

(1) ③ (2) ④ (3) ⑤ (4) ② (5) ①  
(6) ② (7) ④ (8) ① (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③

02

(1) ② (2) ③ (3) ① (4) ③ (5) ⑤  
(6) ④ (7) ③ (8) ⑤ (9) ② (10) ①  
(11) ② (12) ① (13) ⑤ (14) ④ (15) ④

03

(1) ④ (2) ② (3) ⑤

04

(1) ③ (2) ② (3) ②

05 ⑤

06 ④

07 ⑤

10. 포용할 줄 아는 마음

236~237쪽

01

(1) ④ (2) ① (3) ⑤ (4) ④ (5) ③  
(6) ① (7) ③ (8) ① (9) ③ (10) ②  
(11) ① (12) ⑤ (13) ⑤

**02**

(1) ② (2) ② (3) ③ (4) ⑤ (5) ②  
 (6) ④ (7) ④ (8) ① (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①  
 (16) ③

**03**

(1) ② (2) ④ (3) ③

**04**

(1) ③ (2) ③ (3) ④

**05** ③ **06** ⑤ **07** ②

**11.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세**

238~239쪽

**01**

(1) ⑤ (2) ② (3) ③ (4) ② (5) ④  
 (6) ③ (7) ① (8) ④ (9) ⑤ (10) ⑤  
 (11) ③ (12) ①

**02**

(1) ⑤ (2) ① (3) ④ (4) ④ (5) ②  
 (6) ① (7) ② (8) ⑤ (9) ③ (10) ④  
 (11) ⑤ (12) ②

**03**

(1) ④ (2) ③

**04**

(1) ① (2) ①

**05** ⑤ **06** ④ **07** ④

**미래를 밝히다****12. 예술을 향한 열정**

240~241쪽

**01**

(1) ④ (2) ② (3) ① (4) ⑤ (5) ①  
 (6) ③ (7) ④ (8) ② (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⑤  
 (16) ④

**02**

(1) ① (2) ③ (3) ⑤ (4) ③ (5) ⑤  
 (6) ② (7) ④ (8) ① (9) ④ (10) ②  
 (11) ① (12) ③ (13) ②

**03**

(1) ③ (2) ② (3) ②

**04**

(1) ⑤ (2) ① (3) ③

**05** ④ **06** ② **07** ②

**13. 의술에 대한 진심**

242~244쪽

**01**

(1) ⑤ (2) ④ (3) ③ (4) ⑤ (5) ③  
 (6) ①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④ (19) ③ (20) ④  
 (21) ③ (22) ④ (23) ⑤

**02**

(1) ⑤ (2) ① (3) ④ (4) ④ (5) ③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⑤  
 (21) ① (22) ② (23) ③

**03**

(1) ⑤ (2) ④ (3) ③

**04**

(1) ⑤ (2) ① (3) ④

**05** ⑤ **06** ⑤ **07** ④

**14. 세상을 바꾸는 발명**

245~247쪽

**01**

(1) ② (2) ④ (3) ③ (4) ⑤ (5) ③  
 (6) ⑤ (7) ① (8) ①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⑤ (15) ②  
 (16) ① (17) ⑤ (18) ② (19) ④

**02**

(1) ② (2) ③ (3) ④ (4) ③ (5) ⑤  
 (6) ⑤ (7) ② (8) ⑤ (9) ② (10) ④  
 (11) ② (12) ③ (13) ① (14) ④ (15) ⑤  
 (16) ④ (17) ④ (18) ① (19) ②

**03**

(1) ④ (2) ① (3) ③

04

(1) ③ (2) ④

05 ④

06 ④

07 ②

## VI 마음을 노래하다

### 15. 고향 생각

248~249쪽

01

(1) ⑤ (2) ④ (3) ④ (4) ② (5) ②  
(6) ⑤ (7) ① (8) ③ (9) ⑤ (10) ④  
(11) ①

02

(1) ② (2) ④ (3) ③ (4) ③ (5) ⑤  
(6) ③ (7) ④ (8) ① (9) ④ (10) ⑤  
(11) ②

03

(1) ② (2) ① (3) ③

04

(1) ② (2) ⑤ (3) ④

05 ⑤

06 ③

07 ④

### 16. 애절한 그리움

250~251쪽

01

(1) ② (2) ② (3) ② (4) ① (5) ④  
(6) ③ (7) ② (8) ③ (9) ⑤ (10) ①  
(11) ⑤ (12) ③ (13) ⑤ (14) ④ (15) ①  
(16) ①

02

(1) ⑤ (2) ② (3) ③ (4) ② (5) ②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⑤

03

(1) ② (2) ⑤ (3) ⑤

04

(1) ① (2) ② (3) ④

05 ①

06 ③

07 ⑤

### 17. 한 폭의 그림 같은 시

252~253쪽

01

(1) ④ (2) ③ (3) ① (4) ① (5) ④  
(6) ④ (7) ② (8) ⑤ (9) ② (10) ①  
(11) ③ (12) ② (13) ⑤ (14) ⑤

02

(1) ⑤ (2) ② (3) ③ (4) ③ (5) ②  
(6) ③ (7) ⑤ (8) ④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① (15) ②

03

(1) ④ (2) ③

04

(1) ④ (2) ④ (3) ④

05 ③

06 ⑤

07 ②

## VI 역사를 마주하다

### 18. 지켜야 할 우리의 땅

254~256쪽

01

(1) ⑤ (2) ① (3) ② (4) ① (5) ④  
(6) ④ (7) ④ (8) ⑤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⑤

02

(1) ④ (2) ② (3) ② (4) ③ (5) ①  
(6) ② (7) ② (8) ④ (9) ③ (10) ⑤  
(11) ⑤ (12) ① (13) ①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③ (19) ⑤ (20) ①  
(21) ④ (22) ⑤ (23) ③ (24) ①

03

(1) ④ (2) ③ (3) ⑤

04

(1) ② (2) ③ (3) ③

05 ③

06 ③

07 ③

19.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257~259쪽

01

- |        |        |        |        |        |
|--------|--------|--------|--------|--------|
| (1) ③  | (2) ②  | (3) ①  | (4) ⑤  | (5) ⑤  |
| (6) ⑤  | (7) ③  | (8) ⑤  | (9) ④  | (10) ② |
| (11) ⑤ | (12) ① | (13) ② | (14) ④ | (15) ④ |
| (16) ⑤ | (17) ⑤ | (18) ④ | (19) ① | (20) ⑤ |
| (21) ① |        |        |        |        |

02

- |        |        |        |        |        |
|--------|--------|--------|--------|--------|
| (1) ③  | (2) ④  | (3) ①  | (4) ④  | (5) ④  |
| (6) ②  | (7) ③  | (8) ②  | (9) ①  | (10) ④ |
| (11) ⑤ | (12) ④ | (13) ⑤ | (14) ② | (15) ③ |
| (16) ① | (17) ③ | (18) ③ | (19) ① | (20) ② |
| (21) ⑤ | (22) ① | (23) ① | (24) ⑤ |        |

03

- |       |       |       |
|-------|-------|-------|
| (1) ② | (2) ① | (3) ③ |
|-------|-------|-------|

04

- |       |       |       |
|-------|-------|-------|
| (1) ② | (2) ② | (3) ⑤ |
|-------|-------|-------|

- |      |      |      |
|------|------|------|
| 05 ④ | 06 ⑤ | 07 ① |
|------|------|------|

20. 독립과 평화를 꿈꾸며

260~262쪽

01

- |        |        |        |        |        |
|--------|--------|--------|--------|--------|
| (1) ⑤  | (2) ①  | (3) ⑤  | (4) ①  | (5) ④  |
| (6) ②  | (7) ⑤  | (8) ④  | (9) ④  | (10) ② |
| (11) ⑤ | (12) ④ | (13) ② | (14) ④ | (15) ⑤ |
| (16) ③ | (17) ③ | (18) ② | (19) ② | (20) ⑤ |
| (21) ③ | (22) ③ | (23) ① |        |        |

02

- |        |        |        |        |        |
|--------|--------|--------|--------|--------|
| (1) ④  | (2) ③  | (3) ④  | (4) ⑤  | (5) ①  |
| (6) ①  | (7) ②  | (8) ①  | (9) ①  | (10) ④ |
| (11) ③ | (12) ② | (13) ② | (14) ② | (15) ② |
| (16) ⑤ | (17) ② | (18) ② | (19) ④ | (20) ④ |
| (21) ③ | (22) ④ | (23) ⑤ |        |        |

03

- |       |       |
|-------|-------|
| (1) ④ | (2) ② |
|-------|-------|

- |      |      |      |      |
|------|------|------|------|
| 04 ④ | 05 ⑤ | 06 ④ | 07 ⑤ |
|------|------|------|------|

## MEMO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